



# 가정통신문

교무실 : 730-5500 행정실 : 730-5630

제 2023 - 37호

통지대상 :

1,2,3학년 학생 및  
학부모

제목 : 2023년 「어버이 날」 계기교육 자료안내

1. 어버이 날(매년 5월 8일) 법정 기념일 :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



2. 내용 :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색되어 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고 국민정신 계발의 계기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도록 하는 범국민적 기념일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하여오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어 1973년에 제정, 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버이날'로 변경, 지정하였다. 이 날에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조부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하거나 효도관광에 모시기도 하며, 기념식장에서는 전국의 시·군·구에서 효자·효부로 선발된 사람에게 '효자·효부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이들에게 산업시찰의 특전이 주어지기도 한다.

3. 유래 : 영국과 그리스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순절 기간 중 '어머니의 일요일(Mothering Sunday)'이라 불리는 날을 정해 어머니들에게 존경과 애정을 표현하는 풍습이 있었다. 20세기 사회운동가인 '줄리아 워드 하우'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을 따로 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주장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어버이날의 시초는 1907년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인물에서 비롯됐는데,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교회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흰)카네이션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후고 자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위한 '어머니의 날'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날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입법화를 위해 국회의원, 주지사, 시장, 신문사 등에 편지를 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의회에 법안을 상정하였고, 1914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인 토마스 우드로 월슨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Mother's Day)'로 선포하였습니다.

4. 우리나라 : 우리나라가 '어버이의 날(Parents Day)'을 기리는 것과 달리 서양에서는 '어머니의 날(Mother's Day)'과 '아버지의 날(Father's Day)'을 따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날은 워싱턴 주에 살던 '소노라 도드'가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노라 도드는 1909년 어머니의 날 설교 중에 문득 어머니가 사망한 후 6명의 아이들을 훌로 키워낸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의 날'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고, 이듬해 처음으로 아버지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아버지의 날이 공식적으로 제정된 것은 1972년의 일입니다.

## 5. 색깔별 카네이션 꽃말 :

**빨간색** 카네이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건강을 기원하는 사랑' .  
**분홍색** 카네이션: '당신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

**흰색** 카네이션은 '내 애정은 살아 있습니다', '아직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의미로, 주로 죽은 이를 추모할 때 사용된다고 해요.

**보라색** 카네이션은 '자유, 변덕'

**노란색** 카네이션은 '경멸, 거절, 실망'이라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니,

2023. 05. 08.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